

농진청, '월동 꿀벌 사양관리 철저'

겨울철 기상변화 대응, 사양관리 기술 확산 등 노력... 집단 폐사 극복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꿀벌 피해의 중요 요인 중 하나인 꿀벌응애의 발생 밀도를 조사해 양봉농가 피해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현황 파악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꿀벌응애의 발생 밀도를 조사해 양봉농가 피해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현황 파악에 나섰다. 사진은 꿀벌과 이끼시꽃의 모습이다.

대부분의 양봉농가에서도 꿀벌응애를 적극적으로 방제해 피해를 막았기 때

문으로 풀이된다. 농촌진흥청이 월동 전 꿀벌의 증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에는 대부분의 양봉농가에서 사육하는 꿀벌이 월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발집수인 3배 이상의 발집(일벌 8,000마리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겨울철 큰 일교차는 꿀벌의 스트레스를 유발, 안정적인 월동을 위해 뭉쳐있어야 하는 꿀벌무리 뭉치를 풀어지게 한다. 이는 일벌의 외부 활동을 유도해 월동 중 일벌의 수명이 줄어드는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가림이 있는 양봉농가에서는 이러한 기상변화에 대응해 최대한

빛이 벌통에 비치지 않게 차광하고 외부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월동 꿀벌이 있는 장소를 어렵게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비가림이 없는 농가(노지 사육)의 경우에는 과도한 외부 보온을 하지 않아야 한다. 꿀벌이 드나드는 출입문으로 빛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노지 월동에 적절한 장소는 비가림이 적고 그늘진 곳이며, 겨울철 기상변화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안정적인 월동 방법이다.

또한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장비 가온판을 이용한 월동도 가능하다. 이는 가온판이 벌통 내부의 일교차를 줄여 일벌무리가 풀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월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23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사랑복지회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나눔 기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탄 1만장을 기탁했다.

"겨울을 따뜻하게 훈훈한 손길과 정을"

전주상의,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1만장 기탁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23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사랑복지회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나눔 기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탄 1만장을 기탁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단 및 임직원 30여명과 전주연탄은행 관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총 40여명이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훈훈한 손길과 마음의 정을 함께 했다. 전주상공회의소 윤방섭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오늘 전달된 연탄이 옮겨올 어르신 및 지역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온기가 돼줄 것을 바란다며, 도내 많은 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많이 동참해 주시길"을 당부했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ESG 실천(사회적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2010년 이후부터 매년 사랑의 연탄봉사를 비롯 무료급식봉사, 농촌일손돕기 사랑의 헌혈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김옥기 기자



남원농협, 김장마켓 행사 성료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20일과 21일, 남원농협 고죽동 하나로마트 광장에서 남원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남원농협 김장마켓'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장김치 담그기, 김장 채소 및 부재료 특판, 춘향애인 농산물 시식 및 관측, 남원 브랜드 쌀 참미(米) 홍보, 수육 등 요깃거리 무상 제공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남원 공동브랜드(춘향애인) 농산물 시식 및 관측행사에서는 남원시와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남원농협이 주관, 안파, 양파즙, 완속 토마토, 취정요미 등 품질 좋은 농산물 시식과 합인 판매를 실시했다.

한편 박기열 조합장은 "창년부터 고품질 1인 가구부터 대가족까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즐기는 세대를 아우른 축제의 장이었으며, 지속적인 김장마켓 행사로 소비자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경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기업인·청년 등 250여명 참여

경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지난 22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인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나래·이음·이음플러스·청년친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 청년 등 2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전라도와 각 시·군의 담당자들도 자리하여 올 한해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문화공연,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우수제품 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식전문화행사(박형주 듀오),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10개 기업 참여), 참여기업 우수제품 전시회(30개 기업 참여), 참여청년 사진전 시회(참여청년 53명 참여)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최우수 사례 청년 2명(인포커스-박신우, 디알 에스-양지연)이 전북도지사표창을 수상하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신우 청년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청년으로서 교육과 멘토링, 잘사는 청년 지원금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기업에는 1인당 1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취업희망 청년에게는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촉진사업이다.

/김옥기 기자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전개공, ECO융합섬유연구원과 도민태양광발전사업 협약 체결

전북개발공사가 도산하 출연기관 ECO융합섬유연구원과 함께 '도민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개발공사가 사업비 전액을 투자해 ECO융합섬유연구원(이사사 서동로 594)이 제공하는 건물 옥상에 200kW 규모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발전이익 일부를 도내 에너지 개선사업 또는 공익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등 도민에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내년 3월까지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6월 발전소 준공 및 상업운전 시작으로 20년간 운영을 목표로 상호협력해 나갈 계획이



다. 최정호 회장은 "이번 도민태양광 발전소를 시작으로 전력계통 연계가 용이한 도심내 지자체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민강 원장은 "도내 출자·출연기관 간 상호협력력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 및 ESG경영에 좋은 시너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